

종교교육학연구 제17권. pp.59~78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3. 12

영화와 종교교육

申 光 澈

(한신대학교)

《요약》

이 논문의 목적은 종교교육에 대한 영화의 활용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의 물음은 다음과 같다. ‘영화는 종교교육에 유용한 매체인가?’, ‘종교교육에 영화를 활용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종교교육에 영화를 활용함으로써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두 가지 작업을 실시하였다. 첫째, 종교계(특히 개신교회)의 미디어-영화 담론을 분석하였다. 둘째, 필자 스스로의 강의 및 연구 경험을 토대로 영화를 활용하는 종교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종교와 영화는 이미지-창출을 통해 상상을 구현하고 현실을 재현한다는 점에서 접점을 지닌다. 이러한 접점은 ‘종교와 영화’ 내지는 ‘영화와 종교교육’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영화는 또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담지하고 있다. 종교와 영화는 ‘소통’이라는 점에서도 접점을 지닌다.

오늘의 시대를 일컬어 ‘이미지의 시대’ 내지는 ‘영상문화의 시대’라고 부른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직면하여 종교계는 전래의 종교교육에 대한 방향 전환의 압력을 받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종교교육에 있어 구텐베르크의 언어’(문자-텍스트)와 상징적 언어’(영상-텍스트)의 합류를 지향하는 스테레오 종교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핵심 주제어: 미디어-영화 담론, 미디어 교육, 종교와 영화, 영화와 종교교육, 종교 영화, 이미지, 스테레오 종교교육

I. 머 리 말

현대인들은 이른바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인간성 상실의 위기를 느끼고 있다. 이러한 실정 속에서 뜻 있는 사람들이 전인교육(全人敎育)의 필요성을 강조하면

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영역 가운데 하나가 종교교육이다. 오늘날 정신교육 또는 도덕교육의 차원에서 종교교육의 필요성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종교가 국민적 자본(國民的 資本)'으로 이해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¹⁾ 종교교육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종교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문화정책의 주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종교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²⁾

종교교육은 크게 보아서 종교문화교육(宗教文化敎育)'과 종단교육(宗團敎育)의 두 가지 흐름을 취하고 있다.³⁾ 이 두 가지 흐름 중에서 오늘날 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종교문화교육이다. 종교문화교육은 궁극적으로 종교를 통한 문화 이해' 내지는 종교를 통한 인간 이해'를 지향한다. 종교를 통한 문화 이해 내지는 인간 이해는 다양한 매체(media)를 통해 풍요로워질 수 있다. 영화는 중요하고도 유용한 매체 가운데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종교문화교육에 대한 영화의 활용 가능성을 시론적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영화는 종교문화교육에 유용한 매체인가?", 종교문화교육에 영화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종교문화교육에 영화를 활용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의의는 무엇인가?" 등의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먼저, II장에서는 영화가 종교문화교육에 유용한 매체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종교계(특히 개신교회)에서의 영화에 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하고자 한다.⁴⁾ 이는 영화와 종교교육의 관계를 읽어내기 위한 예비적 작업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종교문화교육에서의 영화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길은 다양하게 모색될 수 있을

1) 김종서, 〈종교교육 실태 분석: 종교교육의 이론적 체계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철학·종교사상의 제문제(V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241-242쪽.

2) 종교교육을 문화정책 및 종교정책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있는 정부 주도의 연구 보고서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① 정갑영 외, 《우리나라의 종교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7. ② 김종서 외, 《21세기 종교환경의 변화 및 사회문화적 역할 제고 방안》, 문화관광부, 1998.

3) 윤이훈 교수는 종교교육을 크게 '종단교육'과 '종교문화교육'으로 분류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종단교육'은 "특정종교의 신념체계에 입각해서 인간의 완성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며, '종교문화교육'은 "종교 일반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교육시킴으로써 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은 물론 사회문화 정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대응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다.(윤이훈, 〈다종교문화속에서의 종교교육〉, 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 제2집, 1986, 7-8쪽.)

4) "영화는 종교문화교육에 유용한 매체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영화 자체의 구조에 대한 천착이 또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영화가 오늘날 대중문화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고찰, 영화의 구조에 대한 성찰 등을 통해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다음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것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먼저, Ⅲ장에서는 구체적인 커리큘럼에서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대학에서의 종교학 교양 강좌에서의 영화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대학에서의 종교학 교양 강좌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종교문화교육의 흐름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Ⅳ장에서는 영화를 통한 한국 종교문화 이해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Ⅲ장에서 다루어지는 영화가 일반적인 대중영화 혹은 예술영화를 포괄하는 것이라면, Ⅳ장에서는 주로 종교영화에 초점을 모으게 될 것이다. Ⅳ장에서는 종교문화교육에 대한 종교영화 활용 방안을 시론적 차원에서 모색하게 될 것이다.

Ⅱ. 영화는 종교문화교육에 유용한 매체인가?

영화가 유익한 매체인가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영화가 출현한 이래로 뜨거운 논쟁거리를 이루어 왔다. 영화에 시청 가능한 연령대별로 등급을 매기는 행위에는 근본적으로 영화라는 매체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성찰이 반영되어 있다. 영화가 유익한 매체인가인가 아닌가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는 대표적인 영역은 시민단체와 종교단체일 것이다.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는 미디어 교육의 중심을 이루어 왔다.⁵⁾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는 미디어 교육 내지는 미디어 비평이라는 큰 틀 안에서 영화에 대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는 건전한 문화향유라는 공통된 전제 아래 영화의 유익성 문제를 거론해 왔다. 종교단체의 영화담론은 스스로의 신앙 전통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여기에서는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종교계의 영화 담론을 개괄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한국의 종교계 가운데에서 미디어 교육 내지는 미디어 비평에 가장 활발한 관심을 보이는 집단은 가톨릭과 개신교를 아우르는 그리스도교계이다. 가톨릭의 경우, 일찍부터 미디어 교육의 체계에 대한 이론적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영화 포럼' 등을 통해 미디어 활용에 대한 실천적 지향점을 제시해 오고 있다.⁶⁾ 가톨릭이

5) 김희자, <디지털환경에서의 기독교 미디어교육의 방법론 연구>,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기독교교육정보》 제1권, 2000.9., 165쪽.

6) 영화 포럼의 기원은 프랑스에서 태동한 '시네 클럽'에서 찾을 수 있다. 시네 클럽을 통해 미디어 교육의 초기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영화 포럼은 가톨릭의 성(聖)바오로딸수도회에 의해 1968년 처음 시작되었다.(이복순, 영화 포럼 활동 참가자들의 영적 회심 과정에 대한 고찰,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92쪽.)

미디어 교육의 맥락에서 영화를 통한 소통'의 가능성에 주목하였다면, 개신교의 경우에는 영화의 정체성 및 기능에 대한 담론 구축에 보다 관심을 집중하여 왔다. 개신교계의 영화 담론은 영화가 유익한 매체인가 유해한 매체인가라는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하에서는 개신교계의 미디어-영화 담론의 정황을 소개하는 한편, 필자 나름의 잠정적인 견해를 소개하고자 한다.

커뮤니케이션학자 퀴틴 숄츠(Quentin J. Schultz)는 그의 저서 《거듭난 텔레비전》(Redeeming Television)에서 미디어를 바라보는 그리스도교인들의 관점을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태도와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구분하면서, 전자의 경향을 영지주의의 도전'으로 후자의 경향을 우상숭배적 충동'으로 규정하였다.⁷⁾ 숄츠는 비판과 무조건적 지지로 대별되는 그리스도교계의 미디어 담론의 분출을 대소동'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숄츠가 제시한 그리스도교인들의 미디어관의 유형은 한국 개신교계에 있어 다소 변형된 형태로 나타난다. 한국 개신교계의 미디어 담론은 배타적 거부론'과 가치중립적 활용론', 그리고 비판적 견제 또는 지지론'으로 대별된다. 첫 번째가 문화에 대한 배타적 입장에 근거한 것이라면, 두 번째 경우는 세속 문화(혹은 대중 문화)를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보는 입장에 기댄 것으로 볼 수 있다.⁸⁾ 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집단으로는 낮은 울타리'를 꼽을 수 있다. '사탄이 사용하면 사탄의 문화, 그리스도가 사용하면 그리스도의 문화가 된다'는 낮은 울타리의 문화론은 대중문화를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보려는 경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⁹⁾ 낮은 울타리로 대표되는 가치중립적 활용론자들이 문화적 배타주의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또한 미디어 내지는 대중문화를 활용하면서도 특정 장르에 대해서는 배타적 입장을 나타내기도 한다.¹⁰⁾

배타적 거부론'과 가치중립적 활용론', 그리고 비판적 견제 또는 지지론' 가운데 두 번째의 경우가 활용'의 측면에 보다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면, 첫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는 비평'의 성격에 보다 가깝다고 하겠다. 이러한 비평의 흐름은 구체적인 운동의 차원으로 전개되어 왔다. 첫 번째가 반기독교적 문화에 저항하는 종교적 성격의 비판운동'이라면, 세 번째는 윤리적 성격을 띤 시민운동'의 맥락을 지니고 있다.¹¹⁾ 이 두 운동은 수용자의 의지보다는 문화가 미치는 일방적인 영향

7) Quentin J. Schultz, 김성웅 역, 《거듭난 텔레비전》,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5, 26-54쪽.

8) 박종균, <한국 기독교와 대중문화>, 《기독교와 대중문화 이해》, 대한기독교서회, 1999, 103-104쪽.

9) 위의 글, 96쪽.

10) 예컨대, 낮은 울타리가 '뉴 에이지'를 "사탄의 조종"으로 간주하는 태도가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위의 글, 97쪽.)

11) 유재희, <기독교 문화운동과 영화>,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화전략위원회 편, 《대중문화,

력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각각 나름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¹²⁾

최근 들어서는 개신교계의 미디어론에 상당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미디어는 보다 적극적인 분석 및 활용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론의 변화의 정점에 영화가 자리하고 있다. 영화의 정체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석이 시도되고 있으며, 영화를 통한 그리스도교 교육의 길이 구체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만한 연구로는 김태원의 〈영화와 기독교 교육〉¹³⁾과 김진의 〈영상 문화에 대한 신학적 이해〉¹⁴⁾가 있다.

김태원은 영화를 기존 교육의 틀을 개혁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교육 방법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¹⁵⁾ 김태원은 영화가 그러한 가능성을 지니는 까닭을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영화는 문화적 매개체이며 문화를 창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태원의 이러한 지적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영화는 인류의 다양한 문화를 보여주는 거울인 동시에, 새롭거나 그동안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던 문화에 대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실험의 장이기 때문이다. 김진 또한 영화가 지니는 문화 해석과 창조의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김진은 현대의 많은 문화 영역이 종교성을 흡수하고 있고 그 중심에 영화 매체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¹⁶⁾

다음으로, 영화는 그 어느 매체보다도 영성의 가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언어라는 것이다. 영화는 영상의 언어이기 때문에 인간의 깊은 의식의 세계까지도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¹⁷⁾ 이러한 언급은 영화가 이미지를 통해 상상력을 자극하고 현실의 재현을 꿈꾸는 매개적 언어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영화를 통한 그리스도교교육은 영상(Image)을 통해 학생들에게 종교적 상상력(Religious Imagination)을 심어주는 교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¹⁸⁾

이미지가 갖는 상상과 재현의 힘에서 종교와 영화의 접점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김진에 의해서도 시도되었다. 김진은 종교와 영화가 근친성을 갖는 이유를 영화가 종교의 상징-이미지 역할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서 찾고 있다. 영화는 이미지-상징적 세계(im ginaer-sym bolische W elt)이며 이것이 영화가 태생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예영커뮤니케이션, 2000, 259쪽.

12) 위의 글, 263쪽.

13) 김태원, 〈영화와 기독교 교육〉, 《기독교사상》, 2002년 7월호.

14) 김진, 〈영상 문화에 대한 신학적 이해: 영화를 중심으로〉, 《신학사상》 109호, 2000.6.

15) 김태원, 앞의 글, 208쪽.

16) 김진, 앞의 글, 200쪽.

17) 김태원, 앞의 글, 213쪽.

18) 위의 글, 216쪽.

적으로 가지고 있는 형식의 종교적 차원과 더불어 또 하나의 종교적 차원을 형성시킨다는 것이다.¹⁹⁾ 이러한 언급은 '종교와 영화' 내지는 '종교와 영화교육'이라는 범주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 준다. 종교와 영화는 이미지를 통한 상상의 구현과 현실의 재현이라는 점에서 접점을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접점으로부터 '종교와 영화' 내지는 '종교와 영화교육'이라는 새로운 대화의 장을 열 수 있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영화가 종교문화교육에 유용한 매체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게 되는 것이다.

Ⅲ. 종교문화교육의 일환으로서의 '종교와 영화' 강좌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한신대학교에서는 1999년부터 매년 1학기에 종교학 교양 강좌의 일환으로 '종교와 영화'를 개설하고 있다. 이 강좌를 시작할 때, 두 가지의 교육목표를 세웠다. 첫째, 영화를 종교(학)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을 배양한다는 것이다. 둘째, 영화를 텍스트 삼아 종교학개론 강좌를 구성하여 본다는 것이다.

첫 번째 목표는 종교적 시각 내지는 종교학적 관점에 입각한 영화 독해(film literacy)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종교적 시각 내지는 종교학적 관점이 영화를 읽는 다양한 가능성 가운데 하나이며, 그러한 가능성의 배양을 통해 영화를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읽을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러한 가능성을 종교와 영화의 접점으로부터 찾고자 했다. 종교와 영화는 구원을 향한 달음박질'이라는 점에서 서로 비견할 만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²⁰⁾ 이러한 종교와 영화의 접점은 '영화구원론' 내지는 '영화해탈론'의 정립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²¹⁾

두 번째 목표는 보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설정된 것이다. 이른바 이미지 세대로 불리는 신세대들에게 종교학개론 강좌를 보다 흥미롭게 열어주기 위해, 그들과

19) 김진, 앞의 글, 204-205쪽.

20) 필자는 몇 년간의 강의 경험을 토대로 영화의 종교적 구조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작업은 영화를 종교(학)적으로 읽기 위한 예비적 작업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신광철, <영화의 종교적 구조에 대한 성찰: 영화, 종교(학)적으로 읽기 위한 예비적 작업>, 한신인문학연구소, 《종교문화연구》 제4호, 2002, 15-28쪽.) 영화의 종교적 구조에 대한 성찰은 영화와 종교문화교육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21) '영화구원론' 내지는 '영화해탈론'이라는 영역은 종교학에서의 영화론의 인식론적 기초를 세우는 장이 될 것이다. 영화구원론 내지는 영화해탈론은 철학에서의 '영화존재론'에 비견할만한 영역이다. 한신대학교에서는 2004년부터 대학원에 영상문화학(협동과정) 전공을 개설할 예정이며, 종교학 분야에서는 '영화구원론-영화해탈론', '종교영화론' 등의 강좌가 개설될 예정이다.

눈높이를 맞추는 의미에서 영화를 텍스트로 삼게 된 것이었다. 여기에서 는 종교적 소재나 주제를 다룬 종교영화가 아닌 일반적인 대중영화 혹은 예술영화에 보다 비중을 두었다. 영화를 텍스트로 한 종교학 교양 강좌는 학생들로부터 적지 않은 호응을 얻었다.²²⁾ 참고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한신대학교에서 개설된 '종교와 영화' 강좌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7> 1999년도 '종교와 영화' 개설 현황

년도/학기	요일/시간	담당교수	수강생수
1999/1학기	월/3-4	신광철	223명
1999/1학기	목/1-2	신광철	107명
1999/1학기	목/6-7	신광철	225명

<표 8> 2000년도 '종교와 영화' 개설 현황

년도/학기	요일/시간	담당교수	수강생수
2000/1학기	화/6-7	신광철	164명
2000/1학기	화/6-7	이동진	100명
2000/1학기	화/6-7	최화선	76명
2000/1학기	목/1-2	조현범	56명
2000/1학기	목/3-4	조현범	66명
2000/1학기	목/3-4	하현애	66명
2000/1학기	금/1-2	하현애	88명

22) 지금까지 1999년 3개 강좌 555명, 2000년 7개 강좌 616명, 2001년 7개 강좌 656명, 2002년 7개 강좌 648명, 2003년 7개 강좌 524명이 '종교와 영화'를 수강하였다.

<표 9> 2001년도 ‘종교와 영화’ 개설 현황

년도/학기	요일/시간	담당교수	수강생수
2001/1학기	월/1-2	이창익	59명
2001/1학기	월/3-4	이창익	58명
2001/1학기	화/6-7	최화선	123명
2001/1학기	화/9-10	최화선	40명
2001/1학기	수/1-2	신광철	208명
2001/1학기	목/1-2	이유나	61명
2001/1학기	목/3-4	이유나	107명

<표 10> 2002년도 ‘종교와 영화’ 개설 현황

년도/학기	요일/시간	담당교수	수강생수
2002/1학기	월/1-2	이유나	68명
2002/1학기	월/3-4	이유나	99명
2002/1학기	화/6-7	신광철	150명
2002/1학기	화/9-10	최화선	14명
2002/1학기	수/1-2	신광철	148명
2002/1학기	목/1-2	이창익	86명
2002/1학기	목/3-4	이창익	83명

<표 11> 2003년도 ‘종교와 영화’ 개설 현황

년도/학기	요일/시간	담당교수	수강생수
2003/1학기	월/1-2	노희정	33명
2003/1학기	월/3-4	노희정	144명
2003/1학기	월/6-7	고병철	19명
2003/1학기	화/1-2	이유나	105명
2003/1학기	화/3-4	이유나	147명
2003/1학기	화/6-7	이창익	67명
2003/1학기	화/9-10	이창익	9명

종교와 영화' 강좌는 담당교수에 따라 다양한 주제와 관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모든 강좌의 내용을 소개하기는 어려울 것이기에, 필자의 경험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는 종교와 영화' 강좌의 목표를 영화, 종교(학)적으로 읽기'에 두고서 세 가지 정도의 세부적인 작업을 실시해 왔다. 첫째로, 종교와 영화가 지니는 구원을 향한 질주'로서의 성격을 파악한다. 이는 종교와 영화의 접점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다. 둘째로, 신화, 제의, 공동체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한 영화 읽기를 시도한다. 신화, 제의, 공동체는 종교학자 요아힘 바하(J. Wach)가 제시한 종교경험의 세 가지 차원으로서, 종교현상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하다.²³⁾ 두 번째 영역에서는 이 밖에도 다양한 주제들을 천착하고 있는데, 특별히 현대문화의 종교성과 미래문명에 대한 종교적 상상력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별 천착은 다양한 종교적 주제들에 대한 사색의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관심하는 종교문화교육의 기반을 구축하는 첩경이기도 하다. 셋째로, 영화에 숨겨진 종교적 주제들을 살펴보는 일이다. 영화 속에는 무수한 종교적 이야기와 상징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다.²⁴⁾ 이러한 이야기와 상징들을 포착하는 것 또한 종교문화교육의 중요 내용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필자는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목표 아래 다음과 같이 강좌를 구성하고 있다.

< 제1부> 종교와 영화의 접점: 구원을 향한 달음박질

제1강 영화의 종교적 구조에 대한 성찰: 영화, 종교(학)적으로 읽기 위한 예비작업²⁵⁾

제2강 구원을 향한 질주로서의 영화 만들기²⁶⁾

< 제2부> 영화, 종교(학)적으로 읽기

제1강 신화적 상상과 상상계²⁷⁾

23) Joachim Wach, 김종서 역, 《비교종교학》, 민음사, 1988.

24) 예컨대, 금욕적인 루터교는 스웨덴의 거장 잉그마르 베르만만의 작품들의 심리적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로베르 브레송(Robert Bresson)의 영화중 다수는 프랑스 가톨릭의 안셀무의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고, 일본의 오즈 야스지로의 영화 스타일에는 단순, 억제 그리고 평정이라는 불교의 이상이 반영되어 있다.(Louis Giannetti, 김진해 역, 《영화의 이해》, 현암사, 1997, 419-426쪽.)

25) 주 20번을 참조할 것.

26) 여기에서는 타르코프스키, 베르만, 키슬롭스키 등 구도자적 자세로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의 영화세계를 들여다 봄으로써, 영화구원론 혹은 영화해탈론의 실마리를 포착해 본다. 때에 따라서는, 한 학기 전체 강좌를 이 작업을 위해 배당하기도 했다. 예컨대, 2002년도 1학기에 필자가 담당한 두 개의 강좌 중에서 한 개의 강좌에서 크르지스토프 키슬롭스키의 연작 영화 <십계>를 집중 분석함으로써, 영화 만들기-읽기가 지닐 수 있는 구원론적 가능성을 탐색한 바 있다.

27) 여기에서는 <스타 워즈> 같은 영화를 텍스트로 삼았다. <스타 워즈>는 SF판 건국신화에 해

제2강 제의적 삶을 사는 인간²⁸⁾

제3강 공동체를 위한 삶²⁹⁾

제4강 종교와 과학의 역설³⁰⁾

제5강 미래문명에 대한 상상³¹⁾

< 제3부> 영화에 숨겨진 종교적 세계

제1강 영화와 무교(巫敎)³²⁾

제2강 영화와 불교³³⁾

제3강 영화와 유대-그리스도교³⁴⁾

제4강 영화와 이슬람³⁵⁾

이상에서 한 학기 분량의 '종교와 영화' 강좌의 기본적인 형식을 제시하여 보았다. '종교와 영화'는 대학에서의 종교학 교양 강좌로 기획된 것이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종교문화교육을 위한 모델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필자는 '종교와 영화' 강좌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영상물 편집 및 발표' 숙제를 부과하고 있다. 영화 관련 수업의 고민거리가

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F(Science Fiction) 영화라는 장르는 인류의 신화적 상상력과 영화가 결합된 대표적 사례이다.

28) 예컨대, <죽음, 그리고 남은 자들의 삶>이라는 주제 아래 <축제>(임권택 감독), <학생부군신위>(박철수 감독) 등을 텍스트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강의 경험을 토대로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신광철, <죽음, 그리고 남은 자들의 삶: 영화 '축제'를 중심으로>, 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 제21집, 2000.11. 신광철, <죽음, 그리고 남은 자들의 삶: 영화 '학생부군신위'를 중심으로>, 한신인문학연구소, 《한신인문학연구》 제3집, 2002.12.)

29) 이마무라 쇼헤이(今村昌平) 감독의 <나라야마 부시코(楢山節考)>를 대표적인 텍스트로 활용하였다.

30) 로버트 저메키스(Robert Zemeckis) 감독의 영화 <콘택트(Contact)>를 대표적인 텍스트로 활용하였다.

31) <터미네이터> 연작, <블레이드 러너> 등 SF 영화들을 주요 텍스트로 활용하였다.

32) 박광수 감독의 <그 섬에 가고싶다>, 이장호 감독의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변장호 감독의 <울화>, 임권택 감독의 <불의 딸> 등을 주된 텍스트로 활용하였다. 이 주제와 관련된 강의 경험을 토대로 두 편의 논문을 작성한 바 있다.(신광철, <이미지로 재현된 무속과 그리스도교의 마주침: 영화 '울화'와 '불의 딸'을 중심으로>, 한국역사민속학회, 《역사민속학》 12집, 2001.6. 신광철, <굿의 사회적 치유능력에 대한 해석: 두 편의 영화에 나타난 굿의 지향성을 중심으로>, 한일종교연구포럼, 《종교와 문화정체성: 한일종교연구포럼 창립기념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001.8.)

33) <툼 레이더>를 대표적인 텍스트로 활용하였다.

34)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인생은 아름다워>를 대표적인 텍스트로 활용하였다.

35) <버티칼 리미트>를 대표적인 텍스트로 활용하였다. 이상의 영화 텍스트들은 주로 2002년 1학기 화요일 6-7교시 강좌에서 채택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제시한 것이다. 텍스트로 채택할 수 있는 영화의 범위는 무궁무진할 것이다.

운데 하나는 텍스트로 삼은 영화를 함께 볼 것인가의 여부이다. 주어진 강의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면, 물리적으로 영화를 함께 볼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수업은 영화-보기가 전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자는 학생들에게 채택된 영화 텍스트를 30-40분 분량으로 편집해 오게 해서 편집된 영상물을 함께 보고 토론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특정한 영화를 편집한다는 것은 영화를 읽는 안목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필자는 학생들에게 영화 편집을 할 때 이미지와 이야기를 두 개의 축으로 삼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미지와 이야기를 축으로 한 영화 편집은 나름의 시각에서 영화를 읽는 일의 기초를 구성해줄 수 있다.

IV. 종교문화 이해의 통로로서의 종교영화 활용

필자는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종교영화의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앞으로의 전망을 모색하는 작업을 실시해오고 있다.³⁶⁾ 종교영화란 “종교적 주제를 다룬 영화”를 총칭하는 것이다.³⁷⁾ 한국영화 역사에서 종교영화는 매우 독특한 위상을 차지해왔다. 종교영화는 한국을 대표할 만한 장르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기도 한다. 종교영화는 해외 영화제에서나 일반 공개를 통해 소개된 한국영화 가운데 가장 좋은 실적을 올렸거나 관객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장르 영화”로 언급되고 있다.³⁸⁾

종교는 문화의 원천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그렇기에, 종교적 주제를 다룬 종교영화는 해당 문화권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장르가 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의 종교영화는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종교영화는 또한 종교문화교육을 위한 좋은 텍스트가 될 수 있다. 첫째로, 종교영화는 특정한 종교문화를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영화의 강점은 이미

36) ① 신광철, 〈한국 가톨릭영화의 회고와 전망〉,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교회사연구소, 《부산교회사보》 제28호, 2000.12.21. ② 신광철, 〈한국 개신교영화의 회고와 전망〉,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종교학연구》 제19집, 2000.11. ③ 신광철, 〈한국 불교영화의 회고와 전망〉, 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 제27집, 2002년 여름호. ④ 신광철, 〈한국 무속영화의 회고와 전망〉, 실천민속학회, 제11회 실천민속학회 하계전국학술대회 발표 논문, 2003.8.9. 이밖에, 영화〈개벽〉을 다룬 논문에서 신종교와 관련된 영화의 현황을 간단히 언급한 바 있다.(신광철, 〈신종교와 영화 I: 영화 ‘개벽’의 경우〉, 한국신종교학회, 《신종교연구》 7집, 2002.11.)

37) 이승구 이용관 편, 《영화용어 해설집》, 집문당, 2000, ‘종교영화’ 항목 참조.

38) 김지석, 〈깨달음과 이타행 그리고 소외- 한국의 종교 영화〉, 《한국영화 읽기의 즐거움》, 책과 몽상, 1995, 50쪽.

지-창출'에 있다. 영화의 중요 속성인 이미지-창출은 종교에 있어서도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앤드류 그릴리(Andrew Greely)는 그의 저서 《세속문화 안의 신》(God in Popular Culture)에서 '영화도 영상의 언어이고 종교의 근본적 기원도 영상에 있기 때문에 영화와 종교 그 둘 사이에 만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³⁹⁾

둘째로, 종교영화는 스스로의 전통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이다. 종교영화의 주종을 이루는 것은 이른바 '선교영화'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지만, 종교영화 중에는 당대의 종교문화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시도하고 있는 작품들이 상당수 존재한다.⁴⁰⁾

셋째로, 종교영화는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종교영화는 스스로에게 친숙하지 않은 종교문화를 보다 알기 쉽게 접근하게끔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웃종교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그리스도교 신자는 배용균 감독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을 통해 불교의 깨달음 문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불교 신자는 최하원 감독의 <초대받은 사람들>을 통해 그리스도교의 구원 문화'와 순교 문화'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신교 신자들은 김현명 감독의 <아가다>나 김혁 감독의 <언제나 막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과 같은 영화를 통해 가톨릭의 수행적 삶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⁴¹⁾ 종교영화 가운데에는 보다 직접적으로 종교간 만남을 지향하는 작품들도 있는 바, 박철수 감독의 <오세암>이나 박관호 감독의 단편영화 <나무아미타불 Christmas> 같은 작품은 종교간 대화운동의 텍스트로 삼기에 충분한 것들이다.⁴²⁾

넷째로, 종교영화는 종교문화와 관련된 특정한 주제를 심도 깊게 사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변장호 감독의 <을화>와 <무녀의 밤>⁴³⁾, 임권택

39) Andrew Greely, *God in Popular Culture*, Chicago: Thomas More, 1988, p.59.(김태원, 앞의 글, 216쪽에서 재인용.)

40) 예컨대, 이장호 감독의 <과부춤>은 당대의 한국교회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신광철, <종교영화산책13: 이장호 감독의 '과부춤'>, 《종교신문》 1331호, 2002.10.2.)

41) 신광철, <종교영화산책20: 스크린에 비친 수행자들의 세계>, 《종교신문》 1339호, 2002.12.4.

42) ① 신광철, <종교영화산책23: 영화를 통해 꿈꾸는 평화로운 세상1-박관호 감독의 '나무아미타불 Christmas'>, 《종교신문》 1344호, 2003.1.15. ② 신광철, <종교영화산책29: 영화를 통해 꿈꾸는 평화로운 세상2-박철수 감독의 '오세암'>, 《종교신문》 1350호, 2003.2.26.

43) 신광철, <종교영화산책19: 변장호 감독의 '무녀의 밤'>, 《종교신문》 1337호, 2002. 11. 20.

감독의 <불의 딸>, 최하원 감독의 <무녀도>⁴⁴⁾ 등은 무속으로 대표되는 전통문화와 서구 그리스도교문화 사이의 만남과 갈등의 문제를 성찰하는 데 매우 유용한 텍스트이다.⁴⁵⁾ 임권택 감독의 <축제>나 박철수 감독의 <학생부군신위>는 한국의 장례문화에 담겨진 의미를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텍스트들이며, 박광수 감독의 <그 섬에 가고 싶다>나 이장호 감독의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같은 작품은 무속의례인 굿이 지니는 사회적(공동체적) 치유 능력에 대한 사색의 계기를 주는 텍스트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주제 아래 종교영화를 종교문화 이해 내지는 종교문화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주제를 정하고 해당하는 영화를 중심으로 토론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지금까지 필자가 작업한 것을 토대로 한국의 종교영화의 주제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 주제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여 종교문화교육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표6> 한국 불교영화의 주제별 분류

내용 분류	해당 작품(감독, 연도)
문학 작품을 영화화한 작품	<마음의 고향> (윤용규, 1949), <꿈> (신상옥, 1955), <무영탑> (신상옥, 1957), <꿈> (신상옥, 1967), <무영탑> (김수용, 1970), <꿈> (배창호, 1990) ※ 참고: <만다라> (임권택, 1981), <아제 아제 바라아제> (임권택, 1989), <화엄경> (장선우, 1993), <유리> (양윤호, 1996)
불교 소재 설화 혹은 전설을 영화화한 작품	<에밀레종> (홍성기, 1958), <지옥문> (이용민, 1962), <에밀레종> (권영순, 1968), <대지옥> (권영순, 1972), <다정다한> (최하원, 1973)
국책이념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작품	<성불사> (윤봉춘, 1952), <성불사의 밤> (김화랑, 1970) ※ 참고: <원효대사> (장일호, 1962), <이차돈> (김승옥, 1962), <사명당> (안현철, 1963), <석가모니> (장일호, 1964) <서산대사> (전조명, 1972)

44) 신광철, <종교영화산책14: 최하원 감독의 ‘무녀도’>, 《종교신문》 1331호, 2002.10.2.

45) 신광철, <이미지로 재현된 무속과 그리스도교의 마주침: 영화 ‘을화’와 ‘불의 딸’을 중심으로>, 한국역사민속학회, 《역사민속학》 12집, 2001.6.

불교 관련 인물의 전기 성격의 작품	<원효대사> (장일호, 1962), <이차돈> (김승옥, 1962), <사명당> (안현철, 1963), <석가모니> (장일호, 1964) <서산대사> (전조명, 1972), <증광의 허튼 소리> (김수용, 1986)
불교 역사 관련 작품	<대석굴암> (1965), <다정불심> (신상옥, 1967), <호국 팔만대장경> (장일호, 1978), <무사> (김성수, 2001)
수행과 깨달음의 세계를 묘사한 작품	<파계> (김기영, 1974), <만다라> (임권택, 1981), <아제 아제 바라아제> (임권택, 1989),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배용균, 1989),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정지영, 1991), <화엄경> (장선우, 1993), <유리> (양윤호, 1996)
현실적 삶 속에서 불교적 가르침이 지니는 의미를 추구한 작품	<종각> (양주남, 1958), <관세음보살> (최인현, 1978), <뽕장이 아내> (박철수, 1983), <우담바라> (김양득, 1989) <오세암> (박철수, 1990), <카루나> (이일목, 1996), <달마의 놀자> (박철관, 2001)
윤회사상을 구현한 작품	<은행나무 침대> (강제규, 1996), <번지점프를 하다> (김대승, 2001)
무협영화의 배경으로서 불교적 세계를 차용한 작품	<달마신공> (이혁수, 1978), <사문의 승객> (이영우, 1979), <소림대사> (남기남, 1983)

<표 14> 한국 가톨릭영화의 주제별 분류

전기영화	<안중근사기> (이구영, 1946) <고종황제와 의사 안중근> (전창근, 1959) <의사 안중근> (주동진, 1972) <초대받은 성웅들> (최하원, 1984) <소명> (최인현, 1984)
순교사화 영화	<지성탑> (김정환, 1948) <구원의 정화> (이만홍, 1956) <자주 땀> (최인현, 1968), <새남터의 목소리> (최하원, 1972) <초대받은 사람들> (최하원, 1981) <초대받은 성웅들> (최하원, 1984) <소명> (최인현, 1984)
전쟁중 신앙의 정체성을 모색한 영화	<지하실의 7인> (이성구, 1969) <목소리> (김영걸, 1972)
수행의 세계에 담겨진 의미를 탐구한 영화	<아가다> (김현명, 1984) <언제나 막차를 타고 오는 사람> (김혁, 1992)
타종교와의 만남을 모색한 영화	<오세암> (박철수, 1990)
본격적인 역사영화	<이재수의 난> (박광수, 1999)

<표 8> 한국 개신교영화의 주제별 분류

전기 영화의 성격을 지니는 작품	관련인물	작품
	황재경	죄없는 죄인(최완규, 1977)
	유관순	유관순(윤봉춘, 1948) 유관순(윤봉춘, 1959) 유관순(윤봉춘, 1966) 유관순(김기덕, 1974)
	최용신	상록수(신상옥, 1961) 상록수(임권택, 1978)
	손양원	사랑의 원자탄(강대진, 1977)
	주기철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임원식, 1977) 하늘로 가는 밝은 길(김성호, 1982)
	안요한	낮은데로 임하소서(이장호, 1981)
	최자실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김수형, 1981)
	안이숙	죽으면 살리라(강대진, 1982)
	이기풍	순교보(1986)
	김진홍	새벽을 깨우리로다(이기원, 1989)
	최봉석	예수천당(홍의봉, 1991)
	김계화	외길가게 하소서(오영석, 1991)
	강영우, 석은옥	빛은 내 가슴에(이기원, 1995)
신앙의 힘으로 고난을 극복하거나 삶의 의미를 되찾는 내용을 담은 작품	상한 갈대(유현목, 1984) 천국의 비밀(홍의봉, 1989) 엄마의 기도 나의 기도(임원식, 1989) 불행한 아이의 행복(임원식, 1992) 무거운 새(곽정환, 1994)	
기독교적 진리를 확인·입증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	순교자(유현목, 1965) 사랑의 뿌리(강대진, 1978) 휴거(홍의봉, 1990)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최창규, 1991)	
기독교와 무속의 갈등을 다룬 작품	무녀도(최하원, 1972) 을화(변장호, 1979) 불의 딸(임권택, 1983)	
한국사회 및 한국 기독교 문화 비판 성향의 작품	사람의 아들(유현목, 1980) 어둠의 자식들(이장호, 1981) 과부춤(同, 1983) 할렐루야(신승수, 1997)	

종교영화를 종교문화교육에 활용하는 효율적인 방안으로는 영화 포럼'과 같은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를 감상하기 전에 발제자가 간단한 소개를 한 후, 감상이 같나면 주제를 정해서 토론을 하는 방식을 취하면 좋을 것이다. 종교영화제 형식의 축제 마당을 마련하여 감상과 토론의 장을 넓히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매년 개최되고 있는 대한민국 종교예술제'의

영화제' 같은 경우, 자연스럽게 종교간 대화를 유도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최근, 성공적으로 열렸던 제1회 서울 기독교-영화 축제'의 경우, 종교영화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손꼽을 수 있다.⁴⁶⁾ 서울 기독교-영화 축제는 단순한 기독교영화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바라보는 기독교적 시각 정립을 의도하고 있으며, 영화와 기독교의 해석학적 순환을 지향하고 있다.

V. 맺 음 말

이상에서, 영화가 종교문화교육에 유익한 매체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종교계(특히, 개신교회)의 미디어-영화 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한편, 필자 자신의 강의 및 연구 경험을 토대로 영화를 활용한 종교문화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영화는 시각 혹은 시청각 매체로서 인간의 눈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적 소통'을 돕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⁴⁷⁾ 인간의 모든 종교성의 표현에는 중개적' 표현이 불가피하게 요청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⁴⁸⁾ 영화가 지니는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기능은 중요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영화가 지니는 이러한 기능이 종교문화교육에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큰 것이다. 종교와 영화는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접점을 지니고 있다.

오늘의 시대를 일컬어 '이미지의 시대' 내지는 '영상문화의 시대'라고 부른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직면하여 종교계는 전래의 종교교육에 대한 방향 전환의 압력을 받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종교교육에 있어 '구텐베르그의 언어'와 '상징적 언어', 즉 '문자 텍스트'와 '영상 텍스트'의 합류를 지향하는 '스테레오 종교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⁴⁹⁾ 이러한 정황을 염두에 둘 때, '영화와 종교문화교육'이란 주제는 중요성을 지닐 수밖에 없으며,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기획·실행되어야 필요성 또한 시급할 수밖에 없다.

46) 문화선교연구원과 갯피플닷컴이 주최한 제1회 서울 기독교-영화 축제는 2003년 9월 22일부터 27일에 걸쳐 중앙시네마 극장에서 열렸다.(영화평론가 유재희씨가 이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아 수고했다.)

47) 강진구, <그리스도인이 영화에 대해 가져야 할 자세>, 박한철·강진구, 《감성세대의 영화읽기》, 예영커뮤니케이션, 2002, 193쪽. 인용 부분에서 '복음의 소통을 돕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48) 박영학, 《커뮤니케이션과 종교》, 커뮤니케이션북스, 1998, 111쪽.

49) Pierre Babin, 유영난 역, 《종교 커뮤니케이션의 새 시대》, 분도출판사, 1993, 255쪽.

《참고문헌》

- 강진구, 〈그리스도인이 영화에 대해 가져야 할 자세〉, 박한철·강진구, 《감성세대의 영화읽기》, 예영커뮤니케이션, 2002.
- 김종서, 〈종교교육 실태 분석: 종교교육의 이론적 체계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철학·종교사상의 제문제(V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 외, 《21세기 종교환경의 변화 및 사회문화적 역할 제고 방안》, 문화관광부, 1998.
- 김지석, 〈깨달음과 이타행 그리고 소외- 한국의 종교 영화〉, 《한국영화 읽기의 즐거움》, 책과 몽상, 1995.
- 김진, 〈영상 문화에 대한 신학적 이해: 영화를 중심으로〉, 《신학사상》 109호, 2000.6.
- 김태원, 〈영화와 기독교 교육〉, 《기독교사상》, 2002년 7월호.
- 김희자, 〈디지털환경에서의 기독교 미디어교육의 방법론 연구〉,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기독교교육정보》 제1권, 2000.9.
- 박영학, 《커뮤니케이션과 종교》, 커뮤니케이션북스, 1998.
- 박종균, 《기독교와 대중문화 이해》, 대한기독교서회, 1999.
- 신광철, 〈죽음, 그리고 남은 자들의 삶: 영화 ‘축제’를 중심으로〉, 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 제21집, 2000.11.
- , 〈한국 개신교영화의 회고와 전망〉,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종교학연구》 제19집, 2000.11.
- , 〈한국 가톨릭영화의 회고와 전망〉,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교회사연구소, 《부산교회사보》 제28호, 2000.12.21.
- , 〈이미지로 재현된 무속과 그리스도교의 마주침: 영화 ‘을화’와 ‘불의 딸’을 중심으로〉, 한국역사민속학회, 《역사민속학》 12집, 2001.6.
- , 〈곳의 사회적 치유능력에 대한 해석: 두 편의 영화에 나타난 곳의 지향성을 중심으로〉, 한일종교연구포럼, 《종교와 문화정체성: 한일종교연구포럼 창립기념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001.8.
- , 〈한국 불교영화의 회고와 전망〉, 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 제27집, 2002년 여름호.
- , 〈영화의 종교적 구조에 대한 성찰: 영화, 종교(학)적으로 읽기 위한 예비적 작업〉, 한신인문학연구소, 《종교문화연구》 제4호, 2002.
- , 〈신종교와 영화 I: 영화 ‘개벽’의 경우〉, 한국신종교학회, 《신종교연구》 7집, 2002.11.
- , 〈죽음, 그리고 남은 자들의 삶: 영화 ‘학생부군신위’를 중심으로〉, 한신인문학연구소, 《한신인문학연구》 제3집, 2002.12.

- , 〈한국 무속영화의 회고와 전망〉, 실천민속학회, 제11회 실천민속학회 하계전국 학술대회 발표 논문, 2003.8.9.
- 유재희, 〈기독교 문화운동과 영화〉,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화전략위원회 편, 《대중문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예영커뮤니케이션, 2000.
- 윤이흠, 〈다종교문화 속에서의 종교교육〉, 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 제2집, 1986.
- 이복순, 영화 포럼 활동 참가자들의 영적 회심 과정에 대한 고찰,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정갑영 외, 《우리나라의 종교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7.
- Babin, Pierre, 유영난 역, 《종교 커뮤니케이션의 새 시대》, 분도출판사, 1993.
- Giannetti, Louis, 김진해 역, 《영화의 이해》, 현암사, 1997
- Schultz, Quentin J., 김성웅 역, 《거듭난 텔레비전》,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5.
- Wach, Joachim, 김종서 역, 《비교종교학》, 민음사, 1988.

원고접수: 10월 19일 1차심사: 10월 24일 게재승인일: 11월 30일

연구자 소개

- ① 전공: 종교학(한국종교) / 소속: 한신대학교 종교문화학과 교수
- ② 관심영역: 한국종교, 종교학의 문화비평적 기능, 문화콘텐츠학
- ③ 주요논저: 《천주와 개신교, 만남과 갈등의 역사》, 《한국종교문화사강의》, 《한일 근현대와 종교문화》
- ④ E-mail: iskc@hanshin.ac.kr
-

Film and Religious Education

Shin, Kwang-Cheol

(Hansin University)

《Abstract》

This thesis aims to find the possibility of film as a source of religious education. I ask the following: (1) Is film useful media for religious education? (2) What's the method to use film for religious education? (3) What's the profit by applying film to religious education? For these question, I tried two researches. First, I analyzed the 'discourse on media-film' of religions(especially of the protestant church). Second, I tried to find the possibility of film for religious education by using my experience of lectures and researches.

Religion and film have something in common in that they manifest imagination and revive reality through 'image-making'. This common point makes it possible for us to discuss about 'religion and film' or 'film and religious education'. Film also has a function of communication, and religion and film encounter at this point.

Our age is generally called 'times of image' or 'times of visual culture'. At this moment, religions are pressured to change directions in the field of traditional religious education. These days, the necessity of 'stereo religious education' is on the increase. Stereo religious education heads for the junction of 'language of Gutenberg(literal text)' and 'symbolic language(visual text)'

Key-Words: discourse on media-film, media education, religion and film, film and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 film, image, stereo religious education